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96호_발행일 : 2004년 9월 12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기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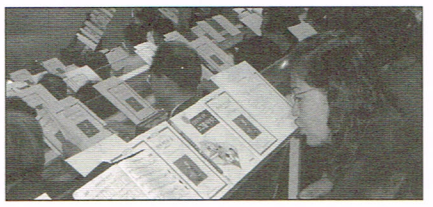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상반기 결산 및 여름행사 교사위로회로 가져

지난주일 오후 4시 30분 교회 지하 식당 옆에 있는 안뜰(이하 중정)에서 교사 Partnership Training이 있었다. 여름 내내 각부서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교사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한번의 새로운 다짐을 하고자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각부서는 주일 예배 후 흩어져 영화를 보는 등 부서별로 단합의 시간을 갖고 다시 교회로 모여 교육지원부가 마련한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가 끝날 즈음 관악합주단 "토브퀸텟"의 연주로 2부 순서를 가지게 되었다. 영아부 김미영집사의 사회로 유상열전도사와 박혜경 교사의 찬양, 해바라기의 연주, 담임목사의 격려, 유년부 교사들의 열정적인 연극, 그리고 수련회 동영상과 함께 한 중등부 교사 송경혜 집사의 수련회간증 등 다양한 행사로 행여나 지칠 수 있는 교사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을 함께 노래하면서 수련회 기간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세표 장로의 기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위원회 행사는 중정에서 실시된 첫 행사로 중정이 새로운 교회안의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인호목사, 개인적 신앙에서 **구역/교구 공동체로 성장** 당부

구역장 수요성경공부 개강



9월 8일(수) 수요예배 후 구역장 성경공부 모임이 개강했다.
지하 찬양연습실에서 구역장들과 구역공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매웠다. 한자리에서 찬양을 한 뒤 이인호 목사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구역장 중 7명을 자원, 선발한 뒤 일반 교회건물의 모습 한 가지씩 맡겨서 그림을 완성시키기로 했다. 안대를 착용하여 각자 엉뚱한데에 교회의 부분을 그리자 즐거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3면에서 계속)

양육클래스 교사들 모여 진행방안 논의

양육위원회소속 양육사역팀 교사모임이 9월 5일(주일), 오후 1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04년 1학기 양육과정을 시작할 때 사전 교사모임이 없었음으로 인해 양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생겨난 혼선을 없애고, 보다 알찬 강의를 하기 위함이었다. 양육클래스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이 거의 참석한 가운데 양육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식 장로의 기도와 교사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김성관 목사가 2004년 2학기 양육의 학사운영 일정을 설명하면서 가능한 한 12주의 수업일수를 채워줄 것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클래스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양육사역팀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있었다. 2004년 2학기 양육과정을 진행할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알찬 강의를 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의

후 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도시락을 함께 들면서 즐거운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아무쪼록 이 양육사역을 통하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탐스러운 교육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

제3기 유소년축구클럽 발대식

오늘 오후 1시 30분 (중등부는 11시 30분) 운동장에서 다시 한 번 주님의교회 어린이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술위원장을 역임한 현 KBS 축구해설위원, 이용수집사를 비롯 헌신된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세종대학체육과 코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시작한 축구클럽이 이제 1주년을 맞이 하였다.
교회 안팎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스포츠를 제공하고 특기를 계발하게 함은 물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교회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축구클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번 3기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정신여중고운동장과 미사리 잔디구장을 오가며 전문적인 축구 기술과 공동체성을 배워 갈 것이다.

새벽기도회가 새로워진다

지난 9월6-7일 전임교역자수련회의 결실 중 하나로 새벽기도회때 설교자의 대표기도가 합심기도로 바뀐다. 이를 위해 "요일별 중보기도제목"이 제공되며, 이 유인물은 구역 및 개인 기도에도 활용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새벽기도회 후 개인기도 시간에는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내 보내기로 했으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를 위해 1층 소예배실 옆 제3집회실을 개방한다. 새벽기도회 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종전대로 목회자들이 순서대로 예배를 인도한다. 새벽기도회에 관한 문의는 이인호목사에게 하면 된다.

주님의 보혈로 성찬을

지난 주일 성찬식을 가졌다. 우리 교회는 매 홀수달 첫째주일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다. 예수님의 몸된 떡과 보혈의 피가 되는 잔을 들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했다. 1-4부의 주일예배, 설교마친 직후 이루어진 성찬식에 주일예배에 참석한 3000여 성도들이 참여하였고, 예배부원과 장로,권사,안수집사 등 미리 연락받고 준비된 성찬위원들이 봉사를 하였다.

하반기 입교 및 세례, 유아세례 신청받아

등록교인 만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세례와, 유아세례 또는 영세 받은 후, 본 교회 등록교인 만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입교를 계획하며 신청을 받는다. 1층로비의 자원봉사연결데스크에 세례 및 입교를 신청하면 된다. 유아세례는 만2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교적이 확인되어야 참여할 수 있으니 소속교구, 구역을 확인하시고, 신청서의 주소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신청하면 되고, 문답교육(유아세례 경우는 부모교육)에 모두 참석하셔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기독교인 환경 10계명

환경부, 2기 환경통신강좌 시작

환경부는 2기 환경통신강좌를 개설하여 박영란집사(4-9)를 반장으로 세우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속의 실천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날 환경문제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어떠해야하는지를 매주 통신강좌를 통해서 배울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창조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창1:26).
수강생은 월 1~2회의 만남을 가진다. 이 모임은 우리교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기독교환경 운동연대(http://www.greenchrist.org)가 주창하는 기독교인 환경 10계명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삼갑시다. 합성세제.**
4. **사용합시다. 중고용품.**
5.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씁시다.**
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 **칠일은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8. **팔지맙시다. 소비광고에 한 눈을.**
9.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
10.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새학기준비한 교역자수련회

전임교역자수련회가 9월6-7일 이틀간 서해안의 국민대연수원에서 있었다. 새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역자간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신임부목사로 부임한 이인호목사 및 청년담당 교역자인 윤은성목사가 함께 참석하여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새벽기도회를 비롯 2004년도의 남은 기간동안 이루어질 교회행사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있었다.

2여선,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펼쳐

12명의 회원들, 8일 루디아의 집 방문

제2여선교회에서는 매월 루디아의 집(시각장애 할머니들의 안식처)을 방문하고있다. 9월8일 12명의 회원들은 교회에서 모여 거여동에 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향하였다. 차안에서는 오늘 있을 일정을 상의하고 그 동안 회원들의 소식을 서로 정답게 나누었다. 우리가 방문하는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던 할머니들은 밝은 표정으로 맞아 주셨다. 10명의 할머니들과 선교회 회원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드렸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도록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산책 나갈 채비를 하였다. 초가을에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회원 한 사람이 할머니 한 분의 팔짱을 끼고 탄천 산책로로 안내했다.
방 안에서만 생활하시던 분들이라 산책하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다. 심하게 허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들은 회원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하면서 걸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들이라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이때가 할머니와 우리가 스킨쉽으로, 대화로 친밀해지는 시간이다. 할머니들은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 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시각장애인으로 불편한 이야기,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일 들까지 계속 이야기하시고 회원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산책을 계속 했다.
올 때 마다 들었던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 드리곤 한다.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이야기를 꺼내 본다. 또 조용한 음성으로 찬송가도 들려 드렸다. 할머니께서는 별다른 반응은 없으셨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믿는다. 산책을 마치면서 굳었던 신체의 부위를 풀어 주는 체조로 마무리하였다. 루디아 집으로 돌아와 준비해간 김밥과 김칫국, 과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창세기 천지창조 부분을 공연했다. 할머니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큰소리로 천천히 공연하였다. 감상하시는 할머니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들으시고, 연극이 끝난 뒤 힘차게 박수를 쳐 주셨다.

(1면에 이어서)

하반기 입교 및 세례, 유아세례 신청받아

교육일정은 장년 세례 · 입교는 9월 19일, 10월 3일, 10일, 17일에 주일 오후1시 30분부터 2시 30분이며, 장소는 제3집회실 (1층 복도 오른쪽 자모실)이다. 교육담당은 이인호 목사이며, 문답식은 10월 24일(주일) 오후1시 30분, 2층 중고 수련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입교 및 세례식은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성경공부시간에 있으며, 세례문답을 한 후, 중예배실(지하 1층)로 오후 7시까지 입구로 오셔서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명찰을 받고, 예배실의 지정된 좌석에 예배 30분전까지 앉아 있으면 된다. 청소년 세례 · 입교교육은 10월 3일, 10일, 17일 주일 오전 11시 00분,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있으며, 담당교역자는 김현령 전도사이다. 문답식은 10월 24일(주일) 오전11시, 4층 교회학교 사무실이다. 청소년 세례입교식은 10월 31일(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교회학교 예배시, 중예배실(지하 1층)에서 있게 된다.
또한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교육은 11월 7일, 14일, 21일(오후 1시 30분)에 소예배실(1층로비)에서 있으며, 담당교역자는 정희성 목사이다. 문답식은 11월 28일(주일) 오후 1시 30분, 제3집회실이다. 유아세례식은 12월 1일(수요일) 수요 성경공부시, 중예배실(지하 1층)에서 있고, 장년세례와 마찬가지로 오후 7시까지 지하1층 중예배실 입구로 와서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명찰을 받고, 지정된 자리에서 유아세례를 받으면 된다. 유아세례식에는 부모가 다 참여하며, 사진촬영은 유아세례식이 끝난 후 가능하다.

담임목사, 장신대 기독교학과 사경회 주강사로

담임목사는 지난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새문안교회 수양관에서 장신대 기독교학과 사경회 주강사로 참여했다. 이 사경회에서 담임목사는 큰 주제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For the Lost)로 정하고 7번의 주제 강연을 했다. 간략하게 그 7개의 강연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Jesus for the Lost(누가복음 19:1-10), Heart for the Lost(누가복음 15:1-32), Theology of the Lost(갈라디아서 2:16-21), Education for the Lost(고린도전서 9:16-27), Spirituality for the Lost(로마서 5:6-8), Mission for the Lost(이사야 62:10; 히브리서 13:12-13), Leadership for the Lost(이사야 42:1-5)이다.
담임목사는 그 동안 교회에서 설교나 기타 강연을 통해 기회 있는 대로 계속 강조했던 seeker(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를 위한 목회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For the un-churched) 목회 비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성경말씀과 함께 체계적으로 강조했다. 영화 쉰들러리스트를 보면 구출 받은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만들어 준 반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 "한 사람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평양노회 남시찰회 열려

지난 주 목요일(9일) 한울교회에서 평양노회 남시찰회가 열렸다. 우리교회에서는 모든 교역자들과 성백술, 김성배, 계학용, 이영자, 김경신 장로가 참석했다. 이번 시찰회에서는 회기내 경과 및 회계 보고와 각 교회 현황보고가 이루어졌다. 평양노회 안에는 현재 6개의 시찰회가 있는데 서울에 4개의 시찰회가 있고 중부와 부산에 하나씩 있다. 남시찰회는 우리교회를 비롯하여 온누리 교회와 방주교회 등 34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올해 가을 노회는 10월 18-19일 강북제일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상담소그룹 2학기 개강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문명의 편리를 누리는 한편 환경 오염과 파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질환이 증가하였으며 친밀한 인간관계의 자리를 컴퓨터와 자동차와 로봇에 빼앗겨버려 차가운 인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상담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목표로, 5층 상담실 원탁의 자에 둘러앉았다.
금요일 아침 9시 30분에서 한 시간정도 진행된 상담소그룹 2학기 첫시간에 세상에서 위대한 상담자이신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대화하며, 기도하며, 성경적 상담을 공부하였다.
『말씀 안의 상담과 치유이야기』를 교재로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사람 콤플렉스, 교회와 세상의 이중구조 속에서 병들어가는 것을 보며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자유와 기쁨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상실했을까?
윤덕영목사는 한 학기동안 자유와 기쁨의 원동력이 되고, 생명의 샘,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라고 주문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담자인 성령님께 배우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을 가지자!"고 강조하였다.

2학기 구역교재 "목적이 이끄는 삶" 구역장에게 받을 수 있어

2학기 구역교재 목적이 이끄는 삶 제3권이 제작되어 지난 수요성경공부시간에 구역장에게 배부되었다. 제3권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소제목을 갖고 전체 13과의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릭워렌 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 교회 구역모임의 형편에 맞게 교재로 자체제작한 것으로, 지난학기 1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2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에 2학기 구역모임용으로 제작되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원래 40과로 제작되었던 것인데, 지난 1학기동안 1-14과를 두권의 책으로 제작하여 공부하였고, 이번학기에는 나머지 26과를 13주의 분량으로 나누어 한권으로 제작하였으므로 2학기동안에는 이 한권으로 공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구역장매뉴얼도 책으로 제작되어 2학기 구역교재와 함께 구역장에게 배부되었다.
구역교재는 구역장이나 4층 교역자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구역장 매뉴얼은 교구목사에게 받을 수 있다.

통합 유아부 싹트네의 여름나기

여름성경학교에서 월례회까지

8월 22일(주일)에는 싹트네 여름성경학교가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싹트네"라는 이름 하에 열렸다.
아이들의 인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지 않지만 교사들은 몇주 전부터 각기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엄마 아빠와 찬양하기, 엄마 아빠과 과자따먹기, 바깥놀이(비누방울), 액자 만들기 그리고 연극(길잃은 어린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대체적으로 준비한 교사들도 참여한 가족들도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9월 5일(주일)에는 신영숙 권사의 후원으로 교사회식을 일식당에서 가졌다.
오랜만에 맛보는 맛있는 음식도 좋았지만 싹트네를 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두분의 게스트가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바로 아이들의 간식시간에 먹을 쿠키, 생일파티때 먹을 케이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시는 김세은 집사와 함즐함울에 기사를 실어주시는 신지민

기자가 같이 자리를 해주어 얼굴은 모르고 이름만 듣다가 처음으로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날 회식이 끝난 뒤 교회로 가서 4시에 교사 PT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월례회를 하였다.
이번 월례회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역할분담이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은정 교사가 주축이 되어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까지 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설교, 생일파티, 활동 등을 각 반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
아마 처음 시기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부분에는 다들 공감을 하였고 이제 또 새로운 바람이 싹트네에 불기를 희망한다.

(1면에 이어서)

이인호목사, 개인적 신앙에서 구역/교구 공동체로 성장 당부

구역장 성경공부 개강

이인호 목사는 구역장으로서의 사명과 자세에 대해 느헤미야서에 기본해서 5가지로 나눠 설명하였다.
특히 그중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보드판에 7명의 구역장이 서로 다른 곳에 지붕을, 문 등을 그려넣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었듯,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넘어 항상 전체의 그림을 숙지해야 한다.
교회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항상 점검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참 어려운 것중 하나는 연결 부분이다.
교회안에서, 구역안에서 이음새가 잘 맞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여백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속에 있는 교회임을 항상 유념하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들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52일만에 완공을 가능케 한 것은 방해꾼으로 인해 더욱 공동체는 튼튼해졌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방해꾼이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대면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503장 찬양을 함께 부르며 감동이 일었다.
다시 이전 7명의 구역장들이 안대를 벗고 교회의 부분을 맡아 그려넣었다. 멋진 교회가 쉽게 완성되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졌다.
지난 주 금요일(10일)부터 시작된 각구역별 모임을 통해 우리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구역장이나 권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든 구역원들이 합심하여 구역의 번식과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반드시 요구된다.
2학기의 모든 구역모임에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넘치기를 기대한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선화 자매의 찬양의 투병생활

C. S. 루이스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다. 4교구 2구역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 가족이 나온 사례가 있다.
이선화C자매(33세)는 말기암환자로 수술도 하지 못하고 2개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주님의교회 호스피스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선화자매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것은 지난 7월 15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병원을 탈출하여 링겔을 꼽고 휠체어에 의지하여 무모한 탈출을 하였다. 여전히 진통이 있지만, 벌써 시한부인 8월을 넘겼고 덤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의 속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아버지 이정명씨는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와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 이금순씨는

"부모님께 투정부리고 아픔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마음껏 투정도 부리고 떼도 쓰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독실한 불교인으로 30년간 절에 다녔지만, 스님이 목사님과 권사님처럼 방문해준 적이 없다."며 감사를 표하자, "어머니, 부처님은 해탈하여 밝게 웃으시고 얼굴과 몸이 윤택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얼굴이 일그러지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침묵)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교구목사가 말한다. 이선화자매는 비록 암투병에 있지만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을 즐겨 부르고 있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듯 기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매는 "부모님께 투정부리고 아픔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마음껏 투정도 부리고 떼도 쓰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됩니다."하고 고백한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독실한 불교인이었다가, 집안의 부적과 불상들과 옷가지들을 전부 정리하고 조상제사도 하지 않는 등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해가고 있다. 주님의 영이 구원의 기쁨과 치유의 감사를 회복해 가기를 기도한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팀, 4-2구역식구들, 호스피스 김양자권사와 김선희집사, 그리고 교구목사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

교회소식

1.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

수험생 자녀를 위한 학부모기도회가 10월2일(토)부터 12월18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 3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인도는 김현령전도사가 맡습니다.

2. 임시제직회

임시제직회가 9월15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요안건은 이인호 부목사 신규청원 및 부목사 연임청원건입니다.

3. 양육클래스 개강

2004년 2학기 양육클래스가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양육클래스 안내지 및 포스터, 함즐함울을 참고하셔서 신앙의 열매맺는 가을되시길 바랍니다. 1층로비에 있는 자원봉사데스크에서 신청하시고, 해당되는 장소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구역모임 시작

구역모임이 지난 9월10일(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역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구 교역자나 교역자실로 문의해주십시오.

5. 세례 교육 및 입교 교육

장년세례 및 입교 교육이 9월19일(주일)부터 5주간 매주일 오후1시 30분 제3집회실(1층)에서 진행됩니다. 1층 자원봉사데스크로 신청해 주십시오. 세례 및 입교식은 10월 27일(수)입니다.

6. 유소년축구클럽 발대식

유소년축구클럽 3기 발대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유소년축구클럽은 매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학교운동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오후 1시 이후에는 운동장에 주차하신 교우 차량을 이동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훈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양육클래스장소안내 (오른쪽 표를 참조바랍니다.)

요일	과 목	시 간	강 사	장 소
주 일	새가족 모임	오전 10:30 오후 12:30	새가족 사역팀	4층 당회원실
	리더훈련주일반(필수)	오후 1:30	김 성 관	3층 초등부실
	제자의 삶(필수)	오후 1:30	정 영 환	3층 소년부실
	성소로 들어가는 삶(예배학교)	오후 1:30	문 희 곤	5층 중보기도실
	그리스도인과 생활법률	오후 1:30	김 완 중	4층 대회의실
	불어성경과 유럽문화	오후 1:30	주 경 복	5층 청년부 2실
	제2의 인생과 그리스도인	오후 1:00	남 장 희	4층 당회원실
	영어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오후 1:00	김 영 숙	지하 대화의방
화	Seeker 소그룹 리더훈련	오후 7:30	문 동 학	3층 초등부실
	제자의 삶 (필수)	오전 10:30	우 동 윤	3층 초등부실
	A Spiritual Journey, John	오전 10:30	김 현 령	5층 중보기도실
	믿음의 여인들	오전 10:30	이 희 숙	5층 청년부 2실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오전 10:30	정 희 성	5층 찬양연습실
수	크리스챤 음향학교	오후 4:00	조 성 곤	지하 찬양연습실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오후 1:00	김 광 일	5층 찬양연습실
목	리더훈련 목요반(필수)	오전 10:30	김 성 관	3층 초등부실
	고린도를 찾아서(고린도전서)	오전 10:30	정 희 성	5층 중보기도실
	성령의 학교	오전 10:30	윤 덕 영	지하 찬양연습실
	중보기도학교	오전 10:30	정 영 환	5층 찬양연습실
금	그분의 발자취(복음서)	오전 10:30	이 창 현	지하 찬양연습실
	말씀하시는 하나님(로마서)	오전 10:30	박 의 일	5층 청년부 1실
	위기의 리더십(느헤미야)	오전 10:30	이 인 호	1층 제3집회실
	기쁨으로 가득찬 편지(빌립보서)	오전 10:30	이 호	3층 초등부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1시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쉴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 간	장 소	대 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싹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